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선민 팔자(?)에 적응 상태 점검법>의 줄거리 :

선민 혹은 교인은 아예 주어진 삶의 조건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아기들이 각각 부모의 처지와 형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선민에게는,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한. 팔자처럼 운명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권이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삶의 조건들에 적응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빗나감의 죄가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팔자처럼 주어지는 선민의 삶의 조건에 선민들이 잘 적응하도록 수시로 적응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과 모든 종류의 규례들입니다.

선민 팔자(?)에 적응 상태 점검법

(출애굽기 21:1~36)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오늘부터 앞으로 살펴볼 몇 장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 법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의 번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12~17절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고, 18~27절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나오고, 28~36절에는 짐승의 임자가 져야 할 책임 문제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중심으로 '선민 팔자(?)에 적응 상태 점검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자 교인입니다. 우리가 선민이자 교인이라는 자아의식을 가질 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는 주어진 삶의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교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몸을 마음으로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이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연쇄 과정 속 예수님의 몸을 마음이 입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이 교인이자 선민입니다.

한편,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실제로 관계함으로써 팔자요 운명처럼 주어지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와 형편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고, 내 외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팔자요 운명인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에 정확하게 팔자나 운명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선민이기를 그만둔다.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살기를 중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팔자와 운명처럼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삶의 조건은 사실 팔자와 운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특권이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권이고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조건들에 적응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빗나감의 죄가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 잘 맞추어서 적응하면 엄청난 은혜와 혜택입니다. 하나님을 빗나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혜택으로부터도 빗나갑니다. 빗나감의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자 교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조건을 팔자요 운명처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민이자 교인들이 죄의 체질 때문에 그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로부터 주어진 것이 계명과 율법과 각종 규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규정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 명령형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과 율법과 각종 규례는 점검의 방식입니다. 선민이고 교인이라면 팔자요 운명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사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명과 율법과 규례가 있고 신약에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그것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자 교인이 되었다면 팔자로 운명으로 주어지는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조건들에 잘 적응하면서 살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명령들은 다 지켜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허락한 삶의 조건들을 잘 적응하여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 취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조건에 맞춰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종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 다양한 법이 등장하는데 우리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이자 교인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35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살고 있던 선민에게 주신 율법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구히 변함없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7~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어긋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식의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담긴 취지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고, 33절에서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담긴 취지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는 하나님께서 특혜이자 특권으로 주신 삶의 조건에 대해 선민이자 교인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민과 교인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 연쇄 과정 속 예수님의 몸을 마음이 입고 사는 선민이자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팔자처럼 주신 삶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조건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 영적 사실들이 임하면서 삶의 조건은 바뀝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내 마음이 올라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할례, 계명과 율법, 성막과 성전, 번제단과 제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약적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언어가 뜻하는 바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입니다. 우리가 운명과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문제가 극심해도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은 돈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사장님을 마주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은 사장님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운명과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존재감에서 일등을 하셔야 합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몸을 입는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팔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한 좋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게 바랄 수 있고, 가지고 싶어 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열망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 좋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좋아하기는 선민의 팔자이자 운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살기로 작정한 선민이라면 음식도 먹고 싶어 할 수 없고, 멋진 옷을 좋아할 수 없고, 어떤 취미 생활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좋아함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몸을 입은 자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다른 것을 좋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만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조건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대로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팔자이고 운명입니다.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삶에 대해 의도할 수 없고, 의지를 가질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뜻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들을 잘 지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적응해 본다면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빗나감의 죄에 체질에 절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민에게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과 계명과 각종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만이 좋다, 하나님만이 삶의 주체다.'라는 세 가지 조건에 맞춘다면 삶은 거저 살아지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닌 인격체이기에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삶의 조건에 맞추어져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계명과 율법과 각종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과 각종 규례는 지키는 것이 아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법 중에서도 하필이면 종에 관한 법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팔자요 운명과 같은 삶의 조건 안에서 사는 선민이라면 가장 민감하고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자기 위치입니다. 선민은 종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종의 위치를 갖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는 종의 개념은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 필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민의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자세는 종의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6절을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에 대한 법뿐만 아니라 본문 전체가 하나님께서 선민이자 교인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하는가를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씀임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인 청년이 형편이 안 좋아서 다른 히브리인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인이 허락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도 낳게 되었습니다. 다만 율법에 의하면 6년 종살이를 했으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종인 상태이기에 혼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를 두고 혼자 나갈 수 없다면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하고 집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왜 하필이면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된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했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종의 출입과 듣는 마음이 연관되어 있고 이로부터 종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종이 의미하는 바는 있음이시고 좋음이시고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께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있음이십니다. 어떤 문제나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있음으로 느끼는 것이 내 팔자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건강 문제를 느낄 수 있는 팔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있음을 느낄 뿐입니다. 행여 건강 문제가 생겼음을 의식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에서 건강 문제를 느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좋음이십니다. 내 마음은 무엇인가를 좋아해야만 하는데 선민이라면 하나님밖에는 좋아할 수 없는 것이 팔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의 조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주체 되심에 잘 적응해 산다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순전히 듣기만 하는 종의 위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성문화된 율법과 계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끊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끊긴 채로 살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팔자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삶이란 현재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솔로몬이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일에는 판단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선민이라면 세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내가 다른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있음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바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바랍니다. 또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세 가지 조건에 잘 적응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처음으로 종에 대한 법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율법과 계명은 선민에게 운명과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주어

졌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피해를 당했다면 같은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39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동해보복법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온전한 취지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동해보복법과 산상수훈의 말씀의 취지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동해보복법은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못된 짓이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가 생겼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 충실하다면 가해자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좋음으로 소원하기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든 피해 의식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동해보복법과 산상수훈의 해석은 상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체 되심이라는 세 가지 삶의 조건을 팔자로 여기고 잘 적응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 의식이나 손해 의식을 갖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해보복법에 담겨 있는 온전한 취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처럼 광채가 났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선민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조건에 잘 적응했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을 직면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음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만을 유일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내 재산이자 소유이자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은 가해자로서 구약의 동해보복법대로라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만 동해보복법은 가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피해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동해보복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만을 좋아해야 한다는 팔자와 운명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상하게 육체로 사는 삶의 형편에 피해를 보더라도 마음에 피해 의식이나 손해 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내 마음의 귀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운명과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충실하다면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보았을 때도 그것을 피해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주체되심에 잘 적응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다. 내 마음의 보물은 하나님뿐이니 손해 볼 것이 없다. 이것이 내 운명이고 팔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지켜지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아도 손해가 아니라면 왼뺨까지 맞아도 손해가 아닙니다. 또 40절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서 내 마음이 가져야 할 소유이자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속옷과 겉옷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한다면 '이 사람이 속옷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속옷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하는 것처럼 이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듯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물이라는 사실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식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주어도 하나님만 가지면 손해 볼 것 없다는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실제로 겉옷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께 듣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취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초대 교인들은 소유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팔자처럼 허락하신 삶의 조건에 잘 적응한다면 그러

한 일이 있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나는 속옷을 주는 것도 꺼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상수훈에 담긴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분명한 취지를 알고 율법과 계명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민이자 교인입니다. 예배당을 나가야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교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과 주체 되심이라는 삶의 조건들이 팔자처럼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은 채로 팔자처럼 주어진 삶의 조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 그 혜택과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사람 같아 보여도 교인인 한 선민인 한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을 팔자요 운명으로 받고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 이 혜택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빗나가게 하는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이 조건들에 잘 적응하여 모든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